

열반경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이 계율의 하나로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대중경전의 핵심이다. 정법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든가, 불교의 이상인 불국정토의 건설이나 개인적인 안심입명(정법을 지키는데서 가능하다고 인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법을 지키는 것은 불교적 인생관에 있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불교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불교를 신앙한다는 것 자체가 한갓 지적인 유희에 그치고 말거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이용하기 십상이다.

새삼스럽게 이러한 논리를 늘어놓는 것은 조계종의 전국신도회 구성을 놓고 조계종 총무원, 기존의 전국신도회, 재가불자연합 등이 새로운 신도조직을 탄생시키기 위한 조정국면에 있기 때문이다.

개혁종단으로 불리는 조계종 집행부는 깨달음의 사회화란 대전제 아래 조계종의 재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 과

정에서 신도법을 제정하고 이 법안에 의거한 전국신도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원칙적으로 조계종 산하의 사찰에 재적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신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과 신도는 마땅히 신도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문제는 사단법인 조계종 전국신도회가 엄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계종 집행부는 기존의 전국

신도조직 활성화 승가발전의 초석

신도회가 백의종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전국신도회는 기록권을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조계종 전국신도회는 1955년에 창립되어 경신도 불교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 순수한 종교운동이나 승가의 외화 단체가 아니라 정치운동에 매진했던 것도 사실이다. 불교운동에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으며, 지방조직과 중

앙본부의 일체감이 형성되지 못했다. 총무원에 결방살이 하면서도 뒷날 인사가 중심이 되어 이른바 내세운 전국조직으로 존재했다. 그동안 이러한 (사)전국신도회의 과잉적 운영에 뜻이 있는 인사들의 우려와 고민이 수차례 있었다. 특히 지난 대선투표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정치자금 세탁소로 전락했다는 지적은 그 진위를 떠나 불교인들의 자부심에 먹칠을 하였을 뿐

만 아니라 종교단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개혁 종단에서는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국이 개혁의 과정에서 재가불자연합을 태동시켰다. 그러나 명칭은 여하튼 재가불교운동을 체계적으로 이룰 전국적인 조직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사부대중은 냉정하게 과거의 공과를 반성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대동단결하고자

한다. 종교의 생명이 도덕성과 투명성에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신뢰성을 유지하는데 정성을 다해야 하며,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

사설

대한불교 전국신도회는 1950년대 중반 조계종 창종과 함께 출발했다. 당시 재가불자들은 한국불교 본모습을 복원해야 한다는 열망으로 정화불사를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불교정화추진위원회를 결성한 것이 오늘의 전국신도회다.

이후 전신회는 40여년을 불교대중화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근래에 들어

다'는 것이다. 지난날 전신회 중앙기구에 참여했던 사람은 사법의 책임

을 지고 모두 물러서야 한다. 그리고 일선에서 실질적인 조직을 관리해온 시도 단위 회장 10명 내외로 '전신회 재건위원회'를 구성, 범인정관에 명시된 당면적 총재(총무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한다. 조계종산하에 있으면서 중원중원을 무시하고 종단과 신도회가 둘과 기를 찰 정도는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조계종 전국신도회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열린 마당

신도조직개편

최근 재가신도단체 일각에서 전국적 신도조직 결성에 관한 견해 및 계획 발표가 무성해지고 있다. 이는 자율적인 신도조직 결성을 위해 노력하는 각계의 활발한 움직임을 보



김명섭

신도법 근거 충분한 협의후 추진

여준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고 긍정적이다. 중앙신도회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안에 구성해 오는 5월 부처님 오신날 행사를 여법하게 치를 수 있도록 조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중앙신도회는 신도법에 근거

해 구성해야 하며 사찰신도회→교구신도회→중앙신도회로 조직돼야 한다. 신도연합 단체가 참여해야 할 것이다. 신도법상의 요건을 갖춘 신도법 구성원으로 하는 신도회와 신도 연합단체에 의해 중앙신도회는 구성될 것이며 재직사찰을 가

지 않은 신도가 중앙신도회에 참여하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총무원은 신도법의 규정과 취지를 충분히 살려 현 재로서는 교구신도회가 완전하게 구성되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교구신도회가 자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성되고 난 후에 중앙신도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여진다.

총무원은 중앙신도회가 명실상부한 신도의 대표단체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신도연합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조계종 기획실장)

한국불교의 신도회를 대표했던 지난 전국 신도회는 지금껏 많은 문제점을 보여 주었으며 사찰신도회 역시 자주성이 없는 현실이다. 이런 지난날 한국불교의 모습은 재가자나 출가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 바른 한



김재엽

총무원이 간섭·통제하면 발전 못해

국불교 신도회를 건설하려면 첫째 새로운 신도조직이어야 한국불교가 발전 할 수 있다는 필요성을 우리는 느끼야 한다. 둘째 새 신도회는 자주성이 결여되면 발전하지 못한다. 총무원에서 새 신도회를 간섭하는 데 신도회법, 신도회 조직, 신도회 활동 등 전반에 걸쳐 규제하고 강하게 간섭하면 근본

적으로 발전하지 못한다. 재가자도 부처님법을 활발하게 호응하면서 생활 속에 수행수도 하고 싶어함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새 중앙신도회 구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적 신도회는 기초 신도회인 각 사찰신도회를 구성하고 그래서 도단위 및 교구본사 신도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중앙신도회를

구성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기초 신도회를 조직하고 정비하는 일은, 지금까지 모습대로 총무원이 전적으로 간섭하고 통제한다면 바람직한 모습으로 탄생되지 못한다. 몇 년이고 장기간이 걸릴지 모르며 또한 양질의 새 신도회는 탄생시키지도 못할 지도 모른다.

오늘의 한국불교 중앙신도회는 명실상부하게 위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재가불자연합, 전국신도회, 중앙직능기구인 대한불교청년회 등이 협력하여 중앙신도회를 결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 일을 완성하는데는 대중적 차원으로 재가출가가 더욱 힘을 모아 새 중앙신도회를 탄생시켜야 한다. (재가연합 상임집행위원장)

대한불교 전국신도회는 1950년대 중반 조계종 창종과 함께 출발했다. 당시 재가불자들은 한국불교 본모습을 복원해야 한다는 열망으로 정화불사를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불교정화추진위원회를 결성한 것이 오늘의 전국신도회다.

이후 전신회는 40여년을 불교대중화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근래에 들어

다'는 것이다. 지난날 전신회 중앙기구에 참여했던 사람은 사법의 책임

을 지고 모두 물러서야 한다. 그리고 일선에서 실질적인 조직을 관리해온 시도 단위 회장 10명 내외로 '전신회 재건위원회'를 구성, 범인정관에 명시된 당면적 총재(총무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한다. 조계종산하에 있으면서 중원중원을 무시하고 종단과 신도회가 둘과 기를 찰 정도는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조계종 전국신도회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대한불교 전국신도회는 1950년대 중반 조계종 창종과 함께 출발했다. 당시 재가불자들은 한국불교 본모습을 복원해야 한다는 열망으로 정화불사를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불교정화추진위원회를 결성한 것이 오늘의 전국신도회다.

이후 전신회는 40여년을 불교대중화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근래에 들어

다'는 것이다. 지난날 전신회 중앙기구에 참여했던 사람은 사법의 책임

을 지고 모두 물러서야 한다. 그리고 일선에서 실질적인 조직을 관리해온 시도 단위 회장 10명 내외로 '전신회 재건위원회'를 구성, 범인정관에 명시된 당면적 총재(총무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한다. 조계종산하에 있으면서 중원중원을 무시하고 종단과 신도회가 둘과 기를 찰 정도는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조계종 전국신도회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조계종 기획실장』

시론

일본 지진 참사有感

일본 관서지역을 강타한 대지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젖어든다. 우리나라는 과연 무풍지대일 수 있을까. 만약 참혹한 참재지진이 있을 때 저처럼 필사의식을 지닐 수 있을까. 물론 대부분의 의구심은 부정적 결론으로 끝나 버리지만, 우리 또한 만반의 대비를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980년을 진후하여 해마다 이른바 오일위기가설이라는 것이 있었던 적이 있다. 북한에서 밀고 내려 오느니, 학생들이 데모를 심하게 한다느니 하는 그럴듯한 루머들이 장면에 떠돌곤 하였다. 해마다 겪던 일이어서 무관심하려 애쓰지만, 영 속이 썩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 시각에 일본인들은 한반도 통일 위기론이라는 논쟁에 휩싸여 있었다. 한반도가 통일된 후의 과장이 저를 일도 미칠 영향에 관한 논의들이었다. 대부분 일본인들은 한반도 통일을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 있다. 만약 북측의 무력통일이 실현된다면, 일본은 최전선의 군사방어를 목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군비경쟁과 함께 전쟁의 위험이 가중되게 된다. 지금도 일본인들은 가상의 적국을 러시아와 북한으로 여기고 있다. 한편 남반이 주도하는 흡수통일이 된다면 경제위기가 닥친다는 것이다. 가뜰이나 거품경쟁이라고 비웃는 남반의 국력이 북한 주민들을 전부 먹여 살릴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그 경제적 무질서의 과장이 일본에까지 미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우리로서는 섬섬하기도 하고, 또 예비심 강한 저들에 대한 경계심도 생길 수 밖에 없다.

인과관계로 얽힌 세계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정반대의 경우를 상상하게 된다. 즉 일본도가 천재지변에 의해 한물할 경우, 출지는 피난민들이 당을 곳은 바로 우리의 동해안지역이다. 즉 그들 일본인들을 우리가 떠맡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이제 세계는 바야흐로 공동적 운명의 테두리안에 놓이게 되었다. 눈부신 통신교통수단의 발달은 세계를 하나로 묶어 버렸다.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이 곧바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연기적(緣起的) 상관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세계의 여러 나라들 사이에는 눈에 띄지 않는 인과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 아무도 고집된 삶을 독립적으로 꾸려갈 수는 없다.

따라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소아적(小兒的) 자세는 서로를 어렵게 만든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번 대지진 사태이후 일본인들이 외국인의 원조를 극구 사양하는 것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고까운 자존심

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끝없는 남에게 손을 벌리는 비굴한 자세도 문제지만, 신세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치기(稚氣) 또한 문제이다. 아마 그래서 부처님이 중도를 말씀하셨는 지도 모르겠다.

다만 몇번을 곱씹어 봐도 선진적 질서외식은 부러워 단면이다. 인간이 극한 상황속에서도 질서를 잃지 않는다는 것은 고도의 훈련으로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불교사상이 삶의 원리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훈련 받은 결과가 이제 하나의 일관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은 반성의 여지가 많다. 일본의 학교교육은 불교사상의 전과가 그 뿌리를 이루고 있다. 예컨대 국민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꽃이 비록 아름답지만 안개는 재야 하고' 하는 사행시(四行詩)가 있다. 말할 나위도 없이 불교적 무상(無常)을 용해시킨 시구를 반복 강조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 국어교과서에서는 '바다아 놀러 가자' 라고 되어 있다. 일본의 목욕탕에는 예외없이 '정수(淨水)보살'이라는 표현이 있다. 즉, 물 자체를 우리들에게 고맙게 인식시키는 배려가 깔려 있다. 물 하나에도 생명이 깃든다는 의식이 스며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가래를 밟지 마시오', '물

을 아껴 씹시오' 따위의 지시적 표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일본인들의 몸에 배인 겸약성과 정직성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은 아니다. 이와같은 불교적 세계관이 그들 삶의 지배적 원리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여태까지 이 긍정성을 애써 외면하고, 저질적인 면만을 부각시켜 오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인간이 사는데는 어디에나 '후악한' 단면은 있게 마련이다. 이것을 침소봉대하려는 일 보다는 긍정성을 인식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들은 불교를 생활속에 자리매김하였고, 우리는 불교를 공동품으로 치부해 버리고 말았다. 이제부터라도 그 불교적 삶의 원리가 이 시대의 지배적 경향으로 전개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불자들의 의식이 높아져야 하고, 사회의 불교에 대한 시각이 보다 객관적이어야 한다. 불교의 세계화는 바로 이 두가지 목표의 달성이라고 확신한다. 종교는 결코 이 시대를 떠나 혼자만의 삶을 누릴 수는 없다.

고몽방은 삶의 현장에 있는 불교, 관념적 허구를 무너뜨리는 실천의지가 바로 불교적 지향점이어야 한다. 어차피 세계는 중생들의 집합이며 중생들이 있는 한 불교는 존재당위가 있기 때문이다.



정병조 (동국대 교수)

현대만평

박구원



"저 슬픔 우리가 알지요"

일상의 평범을 거부하고 세계속에 뛰어들어 자신의 꿈을 이룩한 大韓國 人 최계월의 불꽃같은 인생드라마

그들은 나를 칼리만탄의 왕이라 부른다

권태하 실명소설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섬(옛 보르네오)에 경상북도만한 정글을 개척, 원목·조립사업을 하는 한국인을 아가. 인근 자바해 마두라 지역에 햇볕을 밝히고 『產物 한국』의 국가적 과업에 마지막 승부를 거는 사업가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 동경 시절 낯에는 야쿠자의 두목들을 휘어잡고 방이면 일본 정계 거물들과 천하대세를 논했던 봉 근 사나이. 서슬퍼런 일본 군국주의 시대에 견습사관(소위) 임관식을 앞두고 "나는 이 전쟁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기개와 배짱의 사나이. 일찍이 수카르노·수하르토 등 인도네시아의 전·현직 대통령, 기사·시트·미키·후쿠다·스즈키·다카 등 일본 역대 수상들과 맺은 교분을 바탕으로 이미 수십 년전 사업의 영역을 국제무대로 넓힌 최계월. 이제 그가 바뀐 일상속에서 자꾸만 소소해지는 우리들에게 뜨거운 메시지를 전한다.

신국판 / 상 254쪽, 하 259쪽
각권 5,000 원
판매 / 751-9468

한국인이여, 그대 가슴에 꿈을 품어라. 그리고 그것을 꼭 이루어라.

中央日報社